주가	환율	금리
+9.66	-0.70	보합
1,432.21 (코스피지수)	929.70원 (원/달러)	4.82%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22.17	(+4.98)
다우(29일)	12,226.73	(+90.28)
나스닥(29일)	2,432.23	(+19.62)
닛케이	16,274.33	(+198.13)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6.12엔	(+0.12)
유로 달러 환율	1.3169달러	(+0.21)
3년만기 회사채	5.16%	(보합)
콜금리	4.47%	(보합)

보해 아이디어, 전남대 '술픈 우리' 최우수상

전남대 '술픈 우리'의 '잎새, 청춘을 물들이다'가 지난달말 광주시 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제 3회 보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또 우수상은 조선대 '5색5감', 호남대 '미식가들'에게 돌아갔으며 장려상 3팀, 입선 4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각 70만원, 장려상 각 50만원, 입선 각 2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 3팀에게는 12월중 해외산업시찰의 기회가 주어진다.

임건우 보해양조 회장은 "이번 공모전이 미래 경제성장의 주역인 지역 대학생들의 도전정신과 협동정신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光銀, 오늘부터 종부세 신고대행 무료서비스

광주은행은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객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서·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안내문과 제반 신고서류를 가지고 광주은행 PB센터 본점 및 상무점과 전 영업점 PB룸을 방문하면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GS칼텍스 여수공장, 선박유도시스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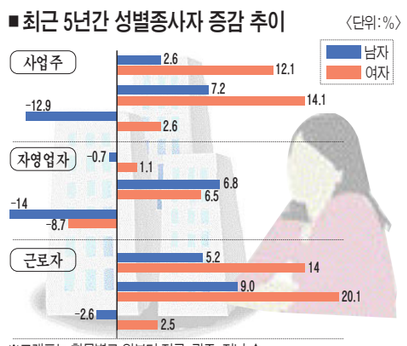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최근 월내동 치안전한 선박 입·출항 관리를 위해 3억6천여만원을 들여 덴마크 마리머테크(Marimatech) A.S사의 최신 레이저 타입 '선박유도시스템((DAS : Docking Aid System)'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대형 전광판 형태의 이 설비에는 선박의 거리와 접근속도가 표시되는 'DLD(Digital Large Display Monitor)' 장치와 선박의 거리 및 접근속도를 탐지하는 레이저 센서 2기, 풍향·풍속계 모니터 등이 완비돼 있다.

선박유도시스템 설치로 도선사와 선장들은 선박접안시 육안이 아닌 DLD 데이터를 통해 부두와 선박간 거리 및 접근속도를 확인할 수 있고, 조종실에서 원격으로 선박의 계류상태(부두 보호막으로부터 분리간격 또는 압착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女사장님 광주 7,471명 전남 7,012명

男性대비 증가율 5년전보다 광주 2배·전남 7배 늘어



※그래프는 항목별로 위부터 전국, 광주, 전남 순.

지난 5년간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사업장에서 여성사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등 재계에서도 '여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 남성들의 창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여성 창업은 꾸준히 늘어 남성 사업주 증가율 대비 여성 사업주 증가율이 무려 7배에 이르는 등 중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 참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집계' 결과 지난해 국내에서 고용원을 둔 여성 사업주는 24만2천254명으로 지난 2000년 21만6천122명보다 12.1%(2만6천132명)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2.6%(2만6천917명) 증가에 그친 남성 사업주 증가율보다 4.6배 높은 수준으로 여성의 창업 열기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전남의 '여사장'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2005년 광주의 여성 사업주는 7천471명으로 2000년 6천546명보다 14.1%(926명)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사업주 증가율이 7.2%(2천263명)인 것에 비하면 여성 사업주 증가율은 2배에 이른다.

전남의 경우 여성 사업주가 7천12명까지 늘어나면서 2.6%(181명)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은 특히 같은 기간 남성 사업주가 12.9%(3천741명)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 사업주 증가율 대비 여성 사업주 증가율이 무려 7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성의 창업 증가세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전남지역의 여성 사업주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과거 전통 농업 위주의 생활과 달리 전남 도내 도시권 중심의 농촌 다변화 등으로 소규모 창업 등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큰 변화가 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비슷하다. 광주의 여성 자영업자는 2만6천137명으로 5년새 6.5%(1천596명) 증가했다. 반면 전남은 8만9천303명으로 8.7%(8천486명) 감소하면서 소호 벤처사업 등 자영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도 '여풍'이 두드러졌다. 광주는 같은 기간 여성 임금근로자가 무려 20.1%(2만4천157명) 증가했으며, 전남도 5년새 2.5%(2천686명) 늘어났다.

광주·전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고학력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창업시장과 노동시장 모두 '여풍'이 거세지고 있다"며 "특히 전남의 경우 농촌의 다변화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에도 그만큼 큰 변화가 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막오른 '한국 컨벤션 산업전' 지난달 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한국 컨벤션산업전' 전시장을 찾은 컨벤션 산업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87개 업체·기관 등이 마련한 홍보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1일까지 열리는 이 산업전에는 컨벤션 관련 학회와 협회·기업·정부기관 등이 마련한 186개 부스가 전시돼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농업개방 '벤처농업'으로 극복해야"

삼성광주전자·商議 경제포럼서 제기

개방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한국농업이 도약하려면 1차 산업인 농업에 '0.5차'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삼성전자가 최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제 95차 광주경제포럼에 강사로 나선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벤처농업에서 찾아보는 뉴 비즈니스'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연구원이 제기한 '0.5차'는 유통-생산-가공으로 이어지는 농업의 전통적인 사업영역 외에 농업클러스터 육성, 관광·문화자원 활용 등을 통해 창조되는 벤처농업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말한다.

민 연구원은 "0.5차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10만명의 농업 정예인력, 곧 변화촉발자(Trigger)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1촌 1CEO(최고경영자) 양성운동을 체계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 민 연구원은 "한국농업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 것"이라며 "수출장벽이 낮아져 농업시장이 크게 확대된 기회를 이용,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상품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증권으로 '일제 경제수탈' 본다

5일부터 유가증권 특별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서

에 발행된 동양척식회사 주권, 차용증서, 경성전기 주권, 주선무연탄주권, 조선식산은행 주권, 대동아전쟁 특별국고채권, 전시저축채권 등으로 일제의 경제수탈과 침략전쟁사를 보여준다.

또 민족의 항일사를 엿볼 수 있는 조선시멘트주권, 국채헌금보상영수증, 독립공채, 임시정부영수증, 독립의연금 영수증 등 해방과 건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건국공채, 후생복표, 지가증권 등도 포함돼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우리나라 증권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증권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증권예탁결제원 광주지원은 채권·수표·증권·복표 등 우리나라 유가증권 사료들을 관람할 수 있는 유가증권 특별기획전을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흐르는 역사, 남겨진 증거-유가증권으로 보는 일제의 경제수탈과 민족의 항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조선말, 일제치하, 해방과 건국초기에 발행됐던 각종 유가증권 40여점이 선보인다.

이들 사료는 조선시대 토지거래 증서·어음·수표를 비롯해 일제치하

에스피스틸 공장 준공 강판 프레임 생산 돌입

광주시는 강판 프레임 등을 생산하는 에스피스틸㈜이 최근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서 공장 준공식을 갖고 생산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평동 1차산단내 3천여평의 부지에 2천평 규모로 설립된 이 회사는 강판 프레임과 냉연코일 등 연간 6만t의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에스피스틸㈜은 내년 3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0년 1천억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칼라강판가공 설비를 갖춘 이 회사는 삼성전자 광주공장, 동양정공,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공장 등에 생산 제품을 납품하게 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